



철의 노동자

조합원 중심!
단일노조 완성!
생존권 사수!

제14 - 34호 / 2026년 08월 20일 / FAX(031)680-6850 / md.kwmu.kr /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이현우

이제 유족이 직접 나선다

- 고 김승모 대책위원회, 정몽원 회장에게 공식 협상 요구!

어제 언론에서 HL만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먼저 알고 있었던 사측이 노사저널로 노동조합을 자극한 이유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지시로 의도를 숨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 판교에서 피켓 시위 중 우연히 '문서지기정보파쇄' 라는 업체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압수수색 사전 유출 의혹으로 불거지는 것은 아닐지 두고 보겠습니다.

노사저널을 통해 노동조합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수준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물타기며, 노동조합을 도발하기 위한 수순입니다. 무엇을 얻으려는지 몰라도, 사측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총괄대표 항의도 갔지만, 자리에 없었습니다.

■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정몽원 회장 면담 요구도 거절!

산보위에서 정몽원 회장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거부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제 같은 답을 반복하는 긴급 산보위는 잠시 중단합니다. 대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하지 못하는 협의를 끝내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도 중대재해를 해결하기 위해 할 만큼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휴가 기간에도, 주말에도 산보위를 열었습니다. 회사안을 검토했고, 의견을 좁힐 수 있다는 기대도 했습니다.

노동조합 요구안에는 분명 적정인력이 있습니다. 직계장의 생산라인 투입 문제도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두고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노사 현안을 끌어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이제 산보위는 유족협상팀이 직접 나섰으니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노사는 이제는 임단협에 집중합니다.

노동조합 임단협 교섭 요구, 회사는 거부

– 임단협과 산보위는 별개 문제, 교섭은 계속 진행되어야

현재 임단협 교섭이 4차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주 2회로 속도감 있는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요구라며 거절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측의 태도입니다. 중대재해 상황을 핑계로 임단협 교섭까지 거부하면 안됩니다. 산보위와 임단협은 별개임에도 아무런 명분도 없이, 교섭을 거부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 유족, 결정권을 가진 경영진과 직접 협상 체제로 전환!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는 정몽원 회장에게 공식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긴급 산보위를 파행시킨 김현욱 총괄대표는 협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사망사고 중대재해 이후 3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재발방지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와 유가족은 이번 중대재해를 책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최고 경영진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우선, 대책위원회는 8월 19일, 정몽원 H그룹 회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잃은 유가족이 직접 나서서 협상을 요구하는데, 정몽원 회장이 과연 거부할 수 있을까요?

- ◇ 수신 : 정몽원 H그룹 회장
- ◇ 참조 : 조성현 H만도 대표이사
- ◇ 발신 :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
- ◇ 제목 : 고 김승모 중대재해 사망사고 관련 유족협상팀 협상 요구의 건
- ◇ 귀사 협상팀 : 결정 권한을 가진 경영진(김현욱 총괄대표 제외)
- ◇ 일시 및 장소 : 2026년 8월 21일(금) 오전 10시, H만도 본사 회의실

■ 8/26일, 판교에서 수도권 충청권 금속노조 결의대회 진행!

다음 주, 위협의 외주화 중단!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만도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결국, 중대재해 해결과 조합원의 임금과 노동조건도 현장의 힘이 있어야 관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 일터, 조합원의 요구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만도지부는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대책위는 △내일 21일(금), 청와대 앞에서 고 김승모 추모문화제와 24일(월), 서울노동청 앞에서 정몽원 회장 중처법 고소,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